

'학교 바로 세우기' 결의 다져

14일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 비상총회



19일 현재 14일째 천막농성에 나선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정달영)가 지난 14일 오후 4시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학교 바로 세우기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등 학내문제 해결의지를 다져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현재 14일째 천막농성에 나선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정달영)가 지난 14일 오후 4시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학교 바로 세우기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등 학내문제 해결의지를 다져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보낸 문건에 따르면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정교수 승진제한 철폐 ▶미충원 학과의 신입교수 채용 ▶급여성상 동결 철폐 ▶총장선임을 위한 총장추대위원회의 구성 ▶교협 회장 직계회책 철폐 등의 사항들을 법인과 학교당국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들의 참여와 지지가 점증되고 있으며 교육부와 언론기관 등 대외기관들로부터 '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격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우리가 개선을 촉구한 사항들이 반드시 관철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달영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장은 "우리가 개선을 촉구한 사항들이 반드시 관철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교수들의 교권이 권익이 보호되고 성숙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사무국장 명의의 '현 사태에 즈음하여'라는 문건에 따르면 "교협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성명서 등에서 주장한 것만 본다면 그 내용이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이어서 교협의 의도를 건전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경찰서는 지난 15일 포천경찰서 4층 강당에서 경찰서장, 포천교육청 장학관, 중·고 학교장, 교사, 학부모, 청소년 관련 NGO 등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對策 간담회

포천경찰서, 5. 1일부터 집중 단속 계획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복)는 지난 15일 포천경찰서 4층 강당에서 경찰서장, 포천교육청 장학관, 중·고 학교장, 교사(학생부장), 학부모, 청소년 관련 NGO 등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책 전담반 운영, 학교폭력 안전구역 설정 등 경찰의 추진사항과 5. 1일부터 집중 단속 계획임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영복 포천경찰서장 인사말에 이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청소년범죄예방교실, 학교폭력 피해신고 기간 운영(2005. 3. 4~4.30), 학교폭력 대

기 위해 주회 주민자치센터에서 노인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 면장은 "4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 컴퓨터 교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운영해 노인들의 건전한 정보화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현면에서는 이밖에 ▶일동국군병원, 보건지소 등의 협조 속에 관역별 의료진료 서비스 실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한 노인 건강강좌 및 교양강좌 실시 ▶관내 기업체와 연계한 노인소일거리 제공 ▶관내 목욕탕을 이용한 무료 목욕봉사 실시 ▶건강기구 추가 설치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 면장은 "다음카페를 지난 1월 9일 개설해 운영중이다"고 밝혔다.

강 면장은 이 카페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역할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화현면민 또는 화현이 고향인 사람들에겐 이용할 수 있도록 'http://cafe.daum.net/hwahyunmyun'을 개설해 놓았다"며 "지역적인 특성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적어 운영상의 애로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정착시키게 된다면 면정 및 시정 추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강 면장은 주민들에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며 "관내 13개 유관기관과 협조 면의 화합과 변화에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 동네를 말한 다 ㉕

내촌면 내리 이장 이상재

내촌삼거리 교통신호改善 통한 정체 해소

내촌면 내리는 내촌면의 중심지로 마을로 국도 47호선이 관통하고 있으며, 국도 87호선을 통해 포천시내에 접근할 수 있고, 마을 뒤 가평쪽으로는 주금산, 마을 앞으로는 죽령산이 보이는 골짜기 지형에 위치해 있다.



이상재 내촌면 내리 이장

내리는 내촌면사무소가 소재한 곳으로 주로 상업 인구가 마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적 성격을 지닌 마을이다.

내리는 3개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을 조직으로는 청년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등을 주축으로 대소사를 치르고 있다.

청년회는 경로잔치, 책사대회 등의 크고 작은 마을일의 주축이 돼 움직이고 있으며 부녀회와 새마을 지도자 등이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1998년부터 이장을 맡게돼 현재까지 마을의 크고 작은 사안을 대변해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상재(45·사진) 이장으로부터 내리의 마을현황과 발전상을 들었다.

이상재 이장은 내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올해 내촌면 협의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재 이장에 따르면 "내리는 과거부터 인적, 물적 통행이 많았던 곳으로 마을 주민들이 대다수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일부 농업을 겸업하고 있는 가구가 있으나 10여 농가 안팎이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마을은 면사무소 뿐 아니라 우체국, 농협, 축협 등 각종 생활시설이 밀집한 곳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내리의 주민은 1천200여명, 7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내촌면 전체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있으며 원주민은 이중 20~30%가 거주하고 있다.

내리의 옛 지명은 비석거리로 과거 마을에 효자비, 공덕비 등 비석이 많아 전해진 이름이라 한다.

이 이장은 "과거에는 많은 비석이 있었으나 보존이 잘 되지 않아 일부 다른 마을로 이전했다"며 "비석 외에도 마을의 향나무 등이 도로 개통으로 이전돼 과거의 추억은 많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했다.

내리에는 최근 내촌삼거리의 교통정체로 인해 주민들도 함께 정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이장은 "내촌삼거리의 경

우 출근길 남양주에서 포천에 이르는 차량통행이 많아 항상 정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다"며 그 이유를 "시내를 관통해 포천(가산)방향으로 가는 차선이 1개 차선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불법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늘고 있다"며 "주민들과 통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혀 차선과 신호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리는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 약 8년 전 개통된 47호선 국도로 인해 지역상권이 많이 쇠퇴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웠지만 최근엔 조금 나아진 것 같다"며 "베어스타운 등 주변 레저·유흥시설을 활성화가 지역 경제 회복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상업도 상업이지만 주변의 생산농지 규제를 풀어줘 지역이 확장돼 점진적인 도시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리에는 내촌면사무소에 의해 올해 군인아파트의 공간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1개소와 마을 공여지에 실내체육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이장은 "마을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 시설들은 현재 도시도 농촌도 아닌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음·면·동장 ㉞ 화현면 강승봉 면장

노령화 사회 경로당 이용 활성화로 대비

인터넷 카페 개설로 적극적인 面政참여 독려



강승봉 화현면 면장

포천시 화현면은 지리적으로 동쪽으로 가평군 하면, 서쪽으로 군내면·신북면, 남쪽으로 내촌면, 북쪽으로 일동면에 접해 있으며, 국도 47호선이 운악산 자락으로 지나고 있다.

또한 1983년 승격된 면으로 전형적인 농촌의 풍경이 남아 있는 곳으로 동쪽으로 원통산과 현등산이 중앙부에 남북으로 수동천이 흘러 비교적 넓은 평야가 형성돼 있다.

주요 관광지로는 운악산과 그 안에 위치한 무지개폭포가 유명하다.

화현면의 일반현황을 보면 현재 ▶인구 3천251명(시전체의 2.2%) ▶1천231세대(시전체의 2.2%) ▶면적은 43.55km(시전체의 5.2%-농경지 6.78km, 임야 31.97km, 기타 4.8km) ▶행정구역은 13개리(법정3개리·화현리, 지현리, 명덕리) 31개반 ▶행정조직 3담당 14명(일반직 13명, 일용직 1명) ▶학교 2개소 181명(화현초 129명, 지현초 52명) ▶기업체 56개 업체 466명 ▶차량 1천233대(시전체의 2.2%-승용차 788, 승합차 102, 화물차 343)로 구성돼 있다.

포천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 12월 화현면에 부임, 올해로 30년째 공직에 몸담고 있는 강승봉(51·사진) 화현면장에게 화현면의 현황 및 추진사업에 대해 들었다.

강승봉 면장은 화현면의 추진 사업에 앞서 공무원과 주민들의 교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결재시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항상 꼼꼼히 챙겨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주민들에게 알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며 "이장들에게도 이를 당부

해 면에 대한 의견수렴 등 어려운 점을 얘기할 수 있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주민의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의료지원의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이 항상 최신 정책이나 소식에 귀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화현면은 고령화가 진행돼 현재 65세 노인인구가 463명으로 화현면 전체인구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강 면장은 "관내에는 경로당이 12개소로 총 412명이 등록돼 있는데, 부임 후 관내의 경로당을 둘러보니 마땅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노인정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설명했다.

화현면은 경로당이 노인건강 운동기구 설치 및 이용, 노인들의 화부놀이 장소, 필요에 따른 마을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절한 활용방안을 검토중이다.

방안으로는 현재 4대의 컴퓨터를 일부 노인정에 배치해 노인들의 정보능력 향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뒷받침하

CLEAN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안내



한국산업안전공단의정부지도원

CLEAN 사업장 조성으로 사장님도 근로자도 웃었습니다!

CLEAN 사업은 50일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를 만드는 사업으로, 노동부와 한국 산업안전공단에서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문의 및 대상

- 지원대상
 - 산재보험 가입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http://clean.kosha.net>
 - 접수처 : 031-875-0678
- 접수처
 - 한국산업안전공단의정부지도원 CLEAN사업지원팀
- 신청 및 문의
 - 대표전화 ☎031-826-6092

지원금액

- 지원금액
 - 보조금 : 3,000~4,000만원까지 무상지원
 - ※ 주물, 도금, 피혁, 염색, 화학업종은 4,000만원까지
 - 나머지 업종은 3,000만원까지 지원
 - 최초 1,000만원 : 전액지원
 - 나머지 2,000~3,000만원 : 50%지원
 - ※ 부족자금은 융자금으로 지원가능
 - 융자금 : 5억한도,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연리 3%

지원품목

- 지원품목
 - 안전시설개선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등 65종
 - 작업환경개선 : 유해물질 국소 배기장치 등 12종
 - 작업장정개선 : 근골격계질환 예방설비 등 13종